Empire in Asia: A New Global History

Volume Two

The Long Nineteenth Century
Edited by Donna Brunero and Brian P. Farrell,

BLOOMSBURY ACADEMIC, London, 2018

요약본

2021년 5월 25일

Vol.2 Introduction: "Globalizing Empire in Asia"

Brian P. Farrell and Donna Brunero

Entanglements and Empire

- 건륭제-매카트니 사절단의 조우 에피소드
- ▶ 심각한 문화적 소통의 실패발생: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의 문제는 부차적 Ex) 건륭제가 조지3세에게 보낸 편지: 세계관, 지위인식, 국제관계 룰에 대한 차이
- ▶ 통상적 해석: 청의 근본적 실수(오만) -> 산업혁명으로 중국 vs 서구열강간 세력균형이 무너지기 전 우호관계를 건설할 기회를 탕진
- 통상적 해석은 비역사적 오류
- ▶ 애초에 두 제국은 근본적 세계(질서)관이 상이했기에 낭비할 기회자체가 부재
- ▶ 베스트팔렌 주권관(국가간 평등)과 천하질서관은 화해불가능
- 19세기 아시아인들 경험의 핵심
- ▶ 청조/천하질서가 산업혁명에 기반한 유럽의 제국주의에 압도
- ▶ 아시아는 유럽열강의 지정학적 팽창과 경쟁의 장소화
- 장기 19세기 역사과정에서 "제국"의 중심성
- ▶ 제국 = 전지구적맥락에서 유례없이 아시아의 질서를 재조형한 도구
- 19세기의 결정적 변화 = 제국간 물리적 역관계 변동 -> 지위/권력 인식 변동 -> 정당성/ 질서 관념 변동
- ▶ 경제/기술발전이 이런 장기 19세기 변화에 중심적: 산업혁명에 의해 변형된 시대
- ▶ 제국에 의해 건설된 진정으로 통합된 지구 정치경제질서 등장
- ▶ 포스트-징기스칸 유라시아에 구성된 제국질서(Imperial Order)가 지구질서(Global Order)로 전환
- ▶ Vol.2.의 대상: 제국을 통한 아시아 지도의 재작성 & 아시아공간의 지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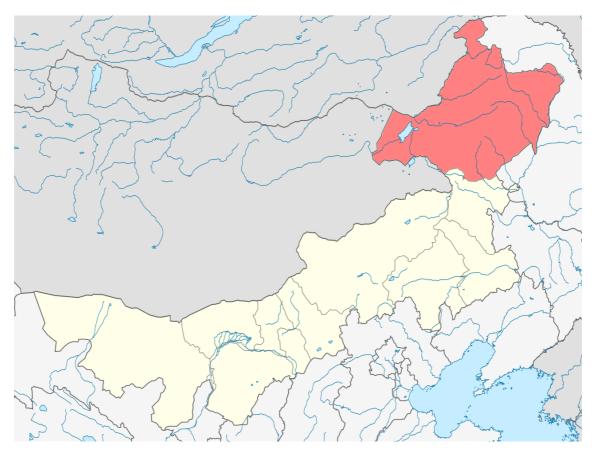
- 유럽중심주의/탈식민주의 비판의 과도함
- ▶ 유럽인이 아시아인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만 해도 비난당함
- ▶ 19세기 근본적 변환이 서구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
- ▶ 다만 능동 vs 수동,침략 vs 피해 같은 단순한 이분법적 이야기X
- 당대 체제수준의 지정학 변동의 3 vectors
- 1) 중앙 유라시아 공간에서 제국들끼리 충돌증가
- 2) 아시아 열강의 서부팽창 감소 ⇔유럽제국들의 동진 증가
- 3) 유럽제국의 해양프로젝트: 진정한 지구정치경제질서 출현 & 아시아지정학의 근본적 재조정
- 질적으로 다른 "산업혁명 제국주의"
- ▶ 새로운 수준의 강도, 역관계 생성
- ▶ 아시아 국가들도 단순히 방관X: 그럼에도 구조적 질서변화는 서구에서 아시아로 투사된 기획

Framing Time, Place, and Themes

- "장기 19세기"아시아의 제국을 다루는 넓은 프레임을 제공해주는 최근연구들
- → 과거 세계체제론(Wallerstein)/세계사(McNeil)연구와 아시아 제국의 지구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매개
- 1)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서구의 산업화로 19세기 이후역관계에 있어 유럽 vs 아시아의 분기발생
- 이로써 아시아 정치경제의 지구화가 추동
- 2) C. A. Bayly, The Birth of the Modern World 1780-1914 (London: Wiley Blackwell, 2004).
- 장기 19세기 = 혁명의 시대(c.1780s) 이래 일련의 변환들로 정의
- → 정치/산업혁명 -> 변화들의 상호작용 -> "전지구적 변환" 발생
- → "유럽적 계기":변환들의 궁극적 원인 = 구미경제지배의 진화
- → 1780: 다극적, 농업제국들의 세계 => 1914: 지구질서 구성/지구사: 지역간 역사의 엉킴과 유사성 증대 => "근대세계"의 출현
- 3) Jürgen Osterhammel,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A Global History of the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19세기는 유럽이 추동: 제국주의/식민주의의 핵심성
- → 유럽의 agency가 힘, 자본주의, 예시를 통해 투사: 다른 대륙들은 유럽을 표준으로 간주
- 그럼에도 유럽제국의 프로젝트는 일방적 정복의 이야기X: "서로 얽힘"의 스토리
- → 유럽권력의 팽창도 transitory: 유럽행위자도 현장의 유산/제약 위에 제국구성
- → 아시아 행위자와 파트너십/협력 불가피
- 장기 19세기 지구질서로의 이행은 유럽과 아시아가 상호 결부된 시스템으로 얽혀 들어가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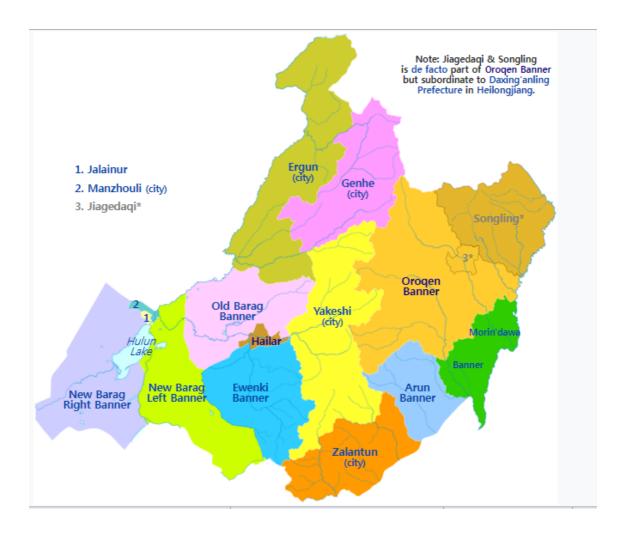
<u>Chapter1: "In the Center of It All: Thoughts from the Edge of Empire"</u>

Thomas David DuBois



- * 제국의 교차점에서는 각 제국이 교차하고 갈등하고 교류하면서 나타난 중층적인 구조가 등 장함
- *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또한 그 교차지역 특성의 정체성과 함께 성장함 -> managed cultural diveristy
- * 제국 교차지역의 자신의 정체성과 제국교차의 침전물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의 중심으로 형성함
- * 이러한 의미에서 제국의 중심과 주변으로 단순하게 구별하는 이분법은 문제가 있음
- * 제국의 수도에서조차 제국은 다원성을 보임 -> 즉 제국 내에는 스스로를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주변부가 있고 이러한 주변부의 중심은 제국의 수도를 일시적인 작업과 학습을 위해서 잠시 머물러야 할 장소로만 봄

* 이러한 사례로 저자는 훌륜바이어르 지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음 -> 훌륜바이어르 지방은 목초지역으로서 몽골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녔지만, 명, 청, 러시아, 근대 중국, 일본, 만주국, 현대중국의 문화유산이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겹쳤던 곳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치를 유지하면서 정체성과 함께 이러한 제국의 침전물을 지니며 overlap of empire로서 스스로 하나의 중심이 되어왔음 -> 이러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u>Chapter2: "Legal Fiction: Extraterritoriality as an Instrument of British Power in China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u>

Robert Bickers

* 아편전쟁 이후 서세동점의 시기에 영국이 청에 행사한 치외법권의 기원 및 전개 그리고 청의 반응에 관한 글

- * 영중간 조약의 세기 -> 제1차 아편전쟁을 종식시킨 1842년 난징조약 체결에서 1943년 중 영우호조약 체결 시기까지의 치외법권의 문제
- * 이 치외법권의 문제는 비공식적 식민주의의 핵심이었으나 많이 연구되지 않음
- * 이 챕터의 관심사 -> This chapter will sketch the evolu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apparatus deployed by British state agents in the Qing Empire after 1842 => 영국이 청제국을 상대하면서 사용한 '치외법권'이라는 도구를 통한 비공식적 제국주의, 비공식적 신민주의를 검토함

<Designing and Implementing Extraterritoriality>

- * 난징조약 이전 영국 선원(1784년 Lady Hughes호의 선원이 관련된 사건)과 미국 선원(우발적, 비의도적으로 중국인을 사고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중국의 신병 인도 요청과 이에 대한 청의 처리(사형)에 대한 영국의 공포와 분노는 이들 사건 이후 강하게 남게 됨
- * 이 사건 이후 영국은 자국민 사건에 대한 영국 자체 처리 방침을 요구하기 시작함: 영국의 주장: 중국은 의도적 살인과 그냥 살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인은 무식하고 무자비 하고 불안정하며, 따라서 영국인의 안전이 위태롭다는 인식이 커짐; due process의 미비를 비판함
- * 1842년 난징조약 체결 이후 1858년 천진조약을 거치면서 치외법권에 대한 영국의 주장은 점차 강화되었고, 이는 영국의 전세계적인 식민지 체제에 대청관계에 있어서의 치외법권도 편입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동시에 홍콩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치외법권은 영국이 홍콩에 대해서 독자적인 지배권(상업, 통상, 인적 문제 등에서)을 지님을 의미함
- * 이에 대해서 청은 1870년대 이후 점차 서구열강이 더 많은 항구를 통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해 오자 이러한 비상호적인 영국의 영사관할권이 국제법상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홍콩의 사례는 더욱 예외적으로 그러하다는 점을 인지함

The detail of the legal system that was developed was founded upon rather vague provisions in the Nanjing Treaty that were given a firmer basis in the 1843 Bogue Treaty and the supplementary Trade Regulations that it included, and then Articles XV and XVI of the 1858 Treaty of Tianjin. It was also subject to shaping and refining in subsequent Sino-foreign treaties, as a result of "Most Favored Nation" clauses, and the earliest and most explicit statement of extraterritoriality came through the US negotiator Caleb Cushing, and its clearest exposition came in the French Whampoa (Huangpu) Treaty of 1844. The sketchy statements of principle in the British agreements were revised in the 1876 Chefoo Convention. In the main, local and subsidiary agreements provided much of the basis on which the British treaty system operated. It was almost twenty-five years after 1842, for example,

before any systematic guidance was issued. This took the shape of a set of Instructions to Her Majesty's Consular Officers written by Sir Edmund Hornby, the court's first judge.

- * 청은 이후 로버트 하트경(영국인이었으나 청에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됨)이 청의 총리아 문에 1876년과 1878년에 걸쳐 두 차례 전달한 각서에서 힘을 얻음 -> 이러한 치외법권은 중 국과 외국의 상업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취지의 각서가 전달됨
- * 청은 그 후 이러한 치외법권이 확장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1919년 파리강화회의 시기까지 치외법권 자체에 대해서 크게 시비를 걸지는 않음

<Establishing a British Supreme Court>

- * 1865 상해에 '중국과 일본 관할 대법원'이 치외법권의 상징으로 설립됨; 중국 관리의 법정 대표권은 없음
- * '영사재판소->상해 대법원(일종의 항소법원)->북경주제 영국장관과 영국추밀원'의 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짐

Consuls sitting in their Consular or "Provincial" Courts could deliver sentences of up to twelve months imprisonment or fines of up to (in 1908) £100 equivalent. Appeals from these went to the Supreme Court as Court of Appeal, and ultimately (in capital cases) to the British minister in Peking for confirmation, and to the Privy Council in London from the Supreme Court. The legal instrument on which the system was based was an 1865 Order in Council, which was restated at later points with further iterations. Hornby issued in 1867 the set of practical guidelines that advised consuls about how to implement both the letter of the order, and work within its spirit. These were not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London and were in part shaped by Hornby's own assessment of how the British presence in China should be shaped. => 이 모든 사업체계는 1865년의 추밀원 명령(Order of Council)에 근거

-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상해 대법원의 대법관인 에드워드 혼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작성함
- * 이와 함께 청이 주재하고 외국 영사가 참여하는 '혼합법정'(Mixed Courts)도 존재함; 외국 인 원고가 중국인 피고를 상대로 함; 1843년 호문조약의 결과물로서 청의 지방행정관이 청법 률에 따라서 판결하는데 영국의 영사가 배석 배판관으로 참여; 처음에 상해에 설립됨
- * 이러한 혼합재판에서는 공공조계(International Settlement)의 법률과 규칙이 강제됨; 공공 조계 행정은 1854년 설립되고 경찰이 존재함; 주로 형사사건 담당

*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이 멸망한 이후 상해 혼합법정은 상해 영사체(중국과 조약을 맺은 열강의 영사들 집단)가 운영하는 조직으로 변화하였고, 그 행정권한은 조계 시립위원회로 이전되었으며, 이 조직은 시경찰에서 파견된 팀을 거느린 행정관을 임명함; 특이한 것은 이 법정이 이후 중국인들의 다양한 민사사건을 '최소접촉(담당 법정은 외국인에 대해서 재판을 할경우 최소한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 가능하다는 원칙)의 원칙'에 따라서 수행하게 됨

In 1911, as the Qing administration collapsed in Shanghai, the Mixed Court was taken over by the Consular Body at Shanghai—the foreign consuls of powers that had signed treaties with China acting in concert—and delegated its administration to the Municip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Settlement, which appointed a registrar, and had a team seconded to him from the Municipal Police.

- * 이러한 혼합법정은 중국에 대한 서구열강의 통제권의 상징이 됨
- * 서구 열강의 치외법권에 따라서 영사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중국 내 외국인은 그 외국인의 중국 내 법정에서 치외법권에 따라서 그 외국의 방식으로 재판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제혼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됨 -> 치외법권은 사실상 중국 내에서 서구열강 등록 시민이 자국 내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보호막의 구실을 함
- * 영국의 경우 중국 영토 내에서 거의 영사관의 숫자만큼 재판소가 있었고, 이에 더하여 최고 재판소를 지니고 있었음

<Practice in Amov>

- * '영국 사람'(British men)의 의미는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광범위하게 해석되었음
- * 말라카 해협 출신으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샤먼에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사망한 Kung Lin Mhone 사례: British Chinese(영국 국적의 중국인)에 대해서 영국의 샤먼주재 영사는 치외법 권을 행사함 -> 동남아에 인접한 샤먼의 특수성의 사례인데 **영국의 중국 내 치외법권 행사는**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행사됨
- * 샤먼에서 영사관할 치외법권의 대상의 다양하게 나타남
- 불안정한 피보호권 대상자들: 치외법권에 대한 해석의 혁신, 영사 개인의 기질, 보호를 원하고 영국계임을 주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소송 전략이 모두 결부된 결과임

The picture that emerges overall is a complex one, in which a wide range of men and women came under the jurisdiction of British consuls in Xiamen. This was to an extent an unstable constituency, relying on innovations in legislation for its interpretation, but also on the personal temperament of individual consuls (who

might to a lesser or greater extent apply the letter of the law), and on the contingent strategies of the Kung, or Edwards, or Fahmy families.

* 이에 더하여 샤먼의 영사 치외법권은 영국 및 영국 통상에 협조하는 중국인과 그들의 재산에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있었음

<Disciplining British Subjects>

- * 치외법권은 중국에 대한 영국의 통제권뿐만 아니라 자국인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함
- * 자국인과 그 재산, 상행위 등도 등록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함
- * 다양한 종류의 영국인이 등급별로 존재하는데 과연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됨
- * 이러한 치외법권은 상해에서 영국인이 아닌 사람(영국인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 등)을 솎아내는 역할도 수행함 -> 무직자 등 rowdy class를 구축하는 역할도 함
- * 그러나 인간적인 도리나 친밀감(실은 인종주의의 다른 표현)라는 이유로 일부 (백인) 영국인은 미등록자여도 때로 좀 더 관대한 처분을 받음 -> 특히 타인종과 결혼한 백인 영국인 여성; 그러나 영국 국적자여도 인종적으로 백인이 아닌 경우는 불이익이 있었음(영국 국적의 인도인)

<Deploying the Regime More Widely>

- * 일본의 치외법권 관리는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의 치외법권 관리는 사실상 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칙적으로 이루어짐: British interests acted as intermediaries, providing access to British status, and so extraterritorial protection: 영국이 유리할 경우 중국인, 중국기업, 중국토지 등에 대해서도 영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나치게 융통성있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치외법권의 확대레짐이 형성됨
- * Class mattered, and so did understandings of "race."; 자산수준과 인종구별에 따라서 치외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됨

<결론>

- *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 청나라와 중국의 영태에서 중국인, 중국자산, 중국토지, 독일인이 대부분을 투자한 명목상의 영국회사 등이 치외법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정도로 치외법권의 적용은 당시 상황을 보아 영국이 자신의 편의대로 규정한 것으로서 일관되지도 않고 불안정한 것이었음
- * 치외법권은 영국이 도구로서 활용한 허구였음; 계급, 종족, 정치적 우선순위가 치외법권의 적용을 결정함; 영국의 힘을 뒷받침한 광범위한 자만심(기발한 착상?)의 유형이었음

it(치외법권) lay in its **incompleteness**. It was **in practice a fiction** that served a British purpose. It was incomplete, and **inconsistent**, and shaped by issues of class, ethnicity, and changes in political priorities. It was far from being hard and fast. More broadly, this was **the type of wider conceit that underpinned British power**.

- * 이렇게 보면 (영국인, 영국기업, 영국관리, 영국자산이 지배하는 세력권이라는 의미에서) 대영제국은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대영제국은 영국과 비영국, 영국인과 비영국인을 구별해 내는 판단, 마음, 감정, 정서, 차별 속에 존재한 것이었다.
- * 제국이란 무엇인가? 어떤 고정된 통치의 제도 혹은 기구인가? 그렇지 않다. 제국은 It(제국) might be described as a project, perhaps, but it was certainly a network: that is, it was an unstable congeries of jurisdictions and territories, with their own policies, including foreign policies, or projection or presentation overseas of the interests of their domestic constituencies/constituents. 네트워크, 불안정한 관할권과 영토의 꾸러미, 국내 세력의 이익이 해외로 반영된 자국과 외국의 정책의 묶음
- * 이렇게 정의되는 제국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며 그 중 하나가 치외법권이다. 그런데 이 치외법권은 이 글에서 영국의 사례로 보았듯이 상황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고, 인종, 계급, 종족 등에 의해서 차별과 선택을 둔 것으로 일관적이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 * The seemingly hard principles underlying it(치외법권) could be superseded when it was deemed necessary.
-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영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전만큼 강하게 치외법권을 주장하지 못 한 사례가 있다.

저자가 보는 제국의 한 측면: 자국의 이익을 타국에 대해서 극대화하려는 확장적 시도로서 편의에 따라서(계급, 인종, 지위, 자산, 국적) 다양한 도구(예컨대 치외법권)를 활용하는데, 이때자국민의 보호/방기의 구분은 반드시 제국인 그 국가의 법률적 소속, 소유권, 관할권, 관리권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운영의 면에서 불안정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불완전하고, 상황의존적이고 편의에 따른 조직이 제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정된 어떤 제국 apparatus는 없다. 또한 제국의 자국의 엘리트 계층의 이익을 도모하는 측면은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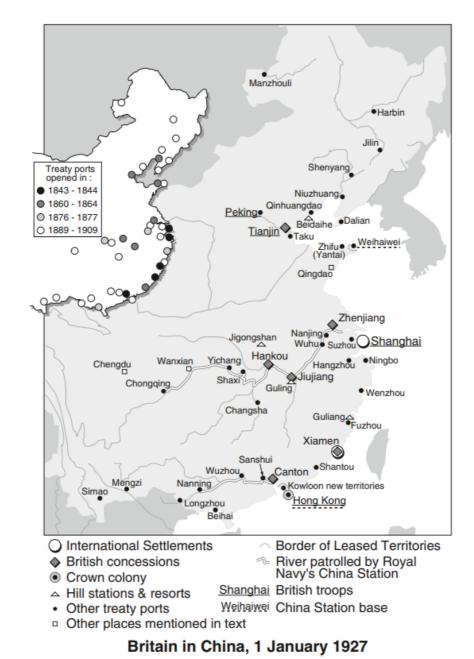


Figure 2.1 Britain in China, January 1, 1927. Map provided by Robert Bickers.

<u>Chapter3: "East Asian Empire and Technology: Imperial Japan and Mobilizing Infrastructute, 1868-1931"</u>

John P. DiMoia

o 메이지 유신부터 태평양 전쟁 이후, 사실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일본의 과학, 기술, 인프라, 건설, 산업 분야의 발전이 일관성이 있음을 보이고, 제국적 팽창

- 의 기술과의 연속성을 밝히는 논문.
- 메이지 시대의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사실상 대외 팽창의 기반을 마련해주었고, 기술에 기반한 제국 건설은 독특한 일본, 일본 식민지의 발전 모델을 제공함.
- o 일본은 1603년 막부 형성 이후 중국의 과학과 포르투갈, 네덜란드로부터 전수된 서구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이미 상당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논의를 시작. 구체 적인 의학, 생물학 등의 기술을 습득. 19세기까지 300년 이상의 평화 기간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음.
- 저자는 서구 제국주의 이전 "중국 과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저조함을 지적. 아 랍지역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큰 것과는 대비. 예수교 인물들의 도래와 더불어 서구, 중국 과학의 상호작용이 일으킨 결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
- o 개항 이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후까지 서구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 습 득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경주. 이와쿠라 사절단(1871)의 노력, 특히 독일로부터 국 가 중심의 과학기술, 산업의 복합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경주.
- Robert Koch와 같은 박테리아 전공 생물학자의 일본 내 활동이 상징적.
- 일본은 소위 2차 산업혁명기에 서구 기술을 흡수. 철강, 염료, 화학 기술, 경영 합리화, 전기, 철도 등 새로운 기술이 중요.
- 일본은 후발 산업국으로 서구의 발전된 기술의 핵심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는 성과 를 누림.
- 19세기 후반 빠른 속도의 철도 건설(동경-요코하마 선을 시작으로), 전기의 확대. 이후 20세기 초 철도의 국유화로 급속하고 체계적인 발전.
- o 저자는 조선, 대만, 만주에 대한 일본의 팽창이 단순한 민족주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축적된 과학과 기술의 팽창으로 보고, 식민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왔다고 주장.
- 더불어 오키나와(1879) 및 호카이도(1869)에 대한 진출 및 체제 정비도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된 과학 기술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
- o 조선에 대해 일본은 전기, 통신, 건축, 의학, 위생, 산업 분야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였고 식민지를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노력을 감행. 조선인들의 시간관, 공간관, 생활습관까지 변화시키는 제국적 통치를 실행. 이러한 배경에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메이지 패러다임이 중요하게 작용.
- 저자는 대한 제국기 한국의 전기, 철도 설치, 덕수궁의 전기시설 등 기술 발전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갑오개혁 이후 일본 기술의 체계적 전파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제시
- 다른 제국들의 식민지 침탈과 달리 식민지에 대한 기술, 산업의 전파, 중국을 침략

하기 위한 철도 건설 등의 사례를 들어 조선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암시. 목적 자체는 일본을 위한 것이었지만 식민지 근대화론과 연결될 수 있는 논리도 존재.

- o 대만에 대해서도 의사 출신인 Goto Shinpei(1857-1929)는 기본 위생의 점검 및 의학 시설 건설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대만 의학체계는 물론 지식, 건설, 산업 분야 까지 모든 분야의 국가 개조를 실행함. 이후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의 초대 총재가 되어 남만주로 진출하면서 이러한 제국적 기술 모델이 확산됨.
- 철도와 항구 발전, 보건, 정비, 설탕, 소금, 담배 등 국유화, 전선, 우편 등의 인프라 건설. 1908년 이임까지 대만의 급속한 변화를 이룩.
- o 만주에 대해서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단순한 철도 기술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변화를 촉진함. 러일전쟁이 이후 철도건설권을 소유했던 러시아로부터 이를 빼앗아온 일본은 남만주철도, 하얼빈에서 아래쪽으로 포트 아서(Port Arthur)까지(포트 아서는 뤼순의 서양식 명칭) 부설권 획득.
- 남만주 철도 좌우 60미터 내의 치외법권을 소유함. 소위 South Manchuria Railway Zone(SMRZ). 남만주에 진출한 일본 철도 기술자들은 이 지역의 석탄공급, 철도 유지를 위한 조달 등을 장악하는 일련의 식민통치자 그룹을 만들어 점차 만주를 점령해 나감.
- o 저자의 관심은 다이쇼 민주주의(1912-1926)가 1931년에 급작스럽게 만주사변으로 이어지고 이어 군국주의의 강화로 침략적 대외정책을 가지게 된 부분을 질문하는 것.
- 저자는 다이쇼 시대에 일본 내 민주주의를 비롯, 다양한 정치 이념이 시행되었고, 문화적 부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 조선에도 문화통치가 실시된 기간으로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과 지배층은 일본과 잦은 왕래,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현상이 발생함.
-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본 내 과학과 기술의 발전, 특히 합리적인 관료층이 두터워지 면서 각 분야별 일본의 국력이 향상.
- 이러한 국력이 제국적 팽창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발전시킴. 1927년 조선 내 철도 팽창은 그러한 대륙 진출의 기반이 되는 전환점으로 간주. * 1927년 조선철도12 년계획.
- 이미 다이쇼 시대부터 합리적이고 관료에 기반한 제국적 팽창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간주. 그러한 점에서 "관료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되었으며, 다이쇼 시대와 쇼와 시대의 팽창 간에는 상당한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
- o 저자는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일본의 복구, 경제발전, 소위 새로운 일본의 발전도 다이쇼 시대와의 연속성 속에서 설명.

- 정치적으로는 미군정을 겪고 패전국의 지위였지만 전전에 쌓여진 합리적 관료주의, 기술에 기반한 체제 건설, 모델의 팽창과 확대 등은 여전히 유효한 발전전략이었 다고 봄.
- 일본의 발전국가 모델의 뿌리를 과학, 기술, 그리고 전전 시대에서 찾는 것도 흥미로운 논점. 더 나아가 동남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 역시 전전의 제국적 팽창 모델의 연장선으로 간주. 일본의 배상금을 기반으로 전전의 제국적 팽창모델을 동남아 재건에 활용한 것으로 논의.

Chapter4: "Suzerainty versus Sovereignty: Establishing French Empire in Indochina"

Bruce M. Lockhart

- 동남아시아에서 존재했던 다양한 층과 형태의 조공관계와 전통질서가 프랑스 식민지로 인해 대체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로 통일됨. 예컨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왕국은 최소한 하나 혹은 다수의 종주국(suzerainty)을 섬기고 있었음. 프랑스는 이러한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모두 없애고 보호국(protectorate)의 지위로 식민지배를 시작.
- 하지만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동남아시아의 조공국들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하였음. 아시아의 조공체제를 빨리 이해한 영국은 조공국들을 무력의 사용 없이 자신의 피식민지로 대부분 전환시킨 반면, 동남아시아에서 후발주자였던 프랑스는 속국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
- * 태국은 전통 종주국 나라로써 종속국에 대해 서구식 주권체제를 적용시켜 속국들을 모두 자신의 영토로 지배하려고 함.

❖ 태국(Siam) 제국

- 주변부의 도시/지방/왕국을 일컫는 Muang이라는 개념이 있음,
- Muang들 간의 위계가 존재(천하질서와는 달리 크기로 구분)
-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와 같은 특정 왕국들은 정치적 자주성(autonomy)을 인정받은 조공국(prathesarat = vassal)의 지위를 가졌음.
- 그보다 낮은 지위에는 자주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대적으로 소규모 성(Sukhothai=province once an independent kingdom 한때 독립적인 왕국이었음)들이 존재

❖ 베트남 제국

- 중국식 천하질서의 작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음(108쪽) 중심부인 성(tinh(省) = province), 시(phů(府) = prefecture), 현(huyện(縣) = district), 주변부인 주(châu(州) periphery)로 구분
- 주변부(기미주=羁縻州)에 대한 통치는 직접 이루어지지 않음
- 조공국은 캄보디아, 라오스(당시에는 여러 소국들도 존재)



❖ 프랑스의 캄보디아 식민지화 (1856-67)

- 태국(Siam)과 외교관계를 통해 1856년에 처음 캄보디아를 방문
- 캄보디아와 상업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종주국인 태국(Siam)의 종속국인 캄보디아에 대한 압박으로 실패함
- 이후 프랑스는 베트남제국으로 논길을 돌림. 1858-59 사이공을 정복,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주변으로 영토를 캄보디아에 근접하게(메콩지역) 확장.
- 1860년 캄보디아의 통치자 교체 → 다시 캄보디아에 접근. 이번에는 프랑스가 베트남(코친키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 기존의 전통 조공관계에 근거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함. 하지만 캄보디아가 태국과는 공식적인 조공관계에 있었지만 코친키나와 캄보디아의 관계는 베트남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맺어진 관계였고
- 무엇보다 프랑스가 베트남제국을 온전히 지배한 것이 아닌 일부 영토를 지배한 것이었음으로. 프랑스는 태국과 베트남제국과 조공관계에 있는 캄보디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 1862년과 1874년 두 차례의 조약을 거쳐서 비로소 프랑스가 베트남의 보호국이 됨. 하지만 여전히 태국과의 조공관계를 인정하면서 프랑스와 캄보디아 간의 독립적인 보호관계를 맺을 수 없었음. 당시 프랑스는 캄보디아와 태국간의 조공관계는 인정하지만 프랑스와의 관계에 서는 캄보디아가 independent and neutral한 지위에서 프랑스의 보호를 받는 것을 요구했

기 때문. 애초에 독립국가가 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동남아시아의 조공체제에서 통하지 않은 것 결국 1867년에 프랑스와 태국이 조약을 체결하여 종조국인 방콕(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한 지배권을 나누어 가짐.

❖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지화 (1874-85)

- 1858-59년 사이공과 주변 3개 지역을 침략
- 1862년과 1874년에 청나라-베트남-프랑스 3국 간의 조약(Philastre Treaty)을 통해 프랑스가 10년간 보호국 지위를 획득. 베트남의 내치와 외치 자주권은 인정해주되 베트남과 청나라 사이의 전통적 속국관계는 유지.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프랑스는 베트남이 주권국이 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 베트남과 청나라는 그 조약을 통해 조공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프랑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음. 무엇보다 조약의 청나라 한문 버전, 베트남 한문 버전이 달라서 프랑스어로 자체적으로 번역함. 요컨대 조약에는 베트남은 "그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한문 조약에는 프랑스의 "protect"라고 적힌 것을 프랑스어 조약에는 "assist"로 쓰고, 한문 조약에서는 프랑스의 "approval"(승인)으로만 적었는데 프랑스어 번역본에는 "managing"(관리)로 명시함. 그렇게 보호권을 프랑스가 억지로 획득하려한 것.
- 하지만 베트남이 1877년에 청국에 조공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는 전통적인 방문이라는 점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음, 그 방문이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보호관계에 해가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 그렇게 베트남은 두 보호국이 생기게 됨. 1880년에는 베트남의 대청 조공단 방문에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시행됨.
- 다른 사례로 1878년 반란군이 베트남에 피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당 현(縣)에서 청국에 반란군을 베트남 영토에서 몰아내는 데 지원을 요청하고 청나라가 개입함. 하지만 프랑스는 74년 조약에 의거 베트남 영토 침범과 영토 관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프랑스에게 있다고 보았음. 이때 프랑스-청나라 사이 갈등이 고조되어 1880년대 청불 군사적 충돌로이어지.
- 1884년과 1885년에 Patenôtre Treaty를 통해 중국의 개입을 거부하고 프랑스가 최종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함.

❖ 프랑스의 라오스 식민지화 (1865-93)

- 지정학적 특성상 라오스의 프랑스 식민지화 과정은 40년이 걸림. 1904년에 체결된 조약으로 최종적으로 통치권을 획득.
- 라오스는 당시 여러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부르마, 시암(태국), 중국, 베트남의 영향권 하에 있었음. 그중에서 특히 태국의 Muang으로써 조공관계에 있었음.
- 프랑스는 우선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식민화시키고 베트남의 조공국인 라오스를 획득하려 했고, 태국(Siam)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우선 베트남의 영향권에 있었던 라오스 영토를 획득.
- 이후 1887(Haw incursion)년과 1893(Paknam Crisis)년에 라오스 내 큰 사건을 통해 라오스에서 태국의 영향력이 축소시키고 프랑스의 보호권이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 따라서 1893년 조약은 태국과 프랑스 사이 체결되었지만 그때 이미 라오스의 통치자들이 프랑스의 지배를 인정함.
- 프랑스는 "gunboat diplomacy"포함외교(군함과 군사력 과시 및 위협)를 통해 라오스를 획

득한 것으로 평가.

❖ 요약

- ▶ 프랑스의 동남아시아 식민지에서는 sovereignty의 suzerainty 대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무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배권 문제를 해결하고 식민지화 하였음.
- ▶ 무엇보다 조약의 원문과 번역 간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처럼 피식민지들은 프랑스의 피보호 국이 되는 것이 중국과의 전통조공관계의 연장선에서 종주국이 프랑스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반면, 프랑스는 조공관계가 아닌 식민지배의 의도를 갖고 있었음. 원문에는 approval을 받는다라는 말이 프랑스 번역본에는 manage로 명시된 것처럼 더 이상 승인이 아닌 직접적인 관리를 받게 된 것.

<u>Chapter5: "Staking out an Imperial States System: The Imperial</u> Frontier in Asia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Brian P. Farrell

- □ 19세기 제국과 제국 사이의 경계 선(線)이 아닌 변경(frontier)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 변경은 'zone'. 제국은 선으로서의 국경선을 방어하지 않고 존으로서의 변경을 manage하고 control함. 변경에서는 다양한 집단들 간에 교류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다양성의 관리가 변경 관리의 핵심.
- □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Great Game'

발단은 1815년 이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방면으로의 영토팽창: "we need to dominate the next region in order to secure the one we already govern" 목표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국경선의 확보. 중앙아시아는 티무르제국 이후 중국, 무굴제국, 영국, 러시아 'breathing room'이었음. 이제 이 지역을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가 충돌.

러시아의 팽창에 영국이 강하게 반발. 두 나라는 1815년 이래 유럽의 최강대국. 두 나라는 유럽의 국제정치와 아시아의 국제정치를 결부시켜 보기 시작함. 영국은 인도를 러시아로부터 막기 위해 적극 대응. 가능한 한 인도의 북서지역으로부터 멀린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 1857년 세포이 반란을 계기로 영국정부는 EIC를 해산시키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

아프가니스탄이 두 강대국 간 각축의 장이 됨.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쉽게 정복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음.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카불을 중심으로 하는 느슨한 부족 연합체(토후국 emirate). 각 부족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립적.

영국의 Closed Border Strategy와 Forward Strategy: 인도의 내치에 집중할 것을 주장(러 시아의 팽창은 변경 부족과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과 러시아의 팽창에 적극 대 응해야 한다는 주장. 변경의 군사요사화를 주장. 후자를 채택한 결과 Second Anglo-Afghan War(1878-1880) 발발. 영국의 승리.

1885년 Penjdeh Crisis: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충돌. 영국은 전쟁을 준비했으나 두 국가는 타협함. 이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Abdur Rahman Khan이 아프가니스탄의 통치자가되면서 영국은 그와 협력

결국 영국이나 러시아는 근대적인 경계선 설정에 실패. 'Layered imperial frontier'에 만족 해야 했음. 이후 영일동맹, 러일전쟁을 거치고 독일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1907년 Anglo-Russian Entente 체결 - 아프가니스탄의 현상유지에 합의. 아프가니스탄은 'buffer space' 혹은 'imperial frontier'로 남음.

Chapter6: "Human Mobility in Russia's Asian Empire"

Paul W. Werth

* 지도 소개 : 1914년 러시아의 영토 팽창 모습

□ 머리말 및 내용 소개

- o 동북아에서 로마노프 제국은 19세기에 가장 다이나믹한 세력임이 입증됨.
- 중국에서 청 세력이 약화되자 짜르 정부는 러시아가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이 자 다른 열강들에게 러시아의 극동 소유지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함.
- 러시아는 페르시아, 조선 및 만주에서 영향력 행사를 더욱 추구함.
- 20세기초에 러시아는 영토 구성과 엘리트의 지정학적 집착 측면에서 하나의 아시아 세력이 됨.
- 아시아가 러시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러시아도 19세기에 아시아의 미래에 중심이 되어 버림.
- o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진출이 기존정치 형태와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한 것은 명백함.
- 본문에서는 이러한 붕괴의 하나의 특정 형태에 중점을 두어서, 제국주의 시대에 동북아 질서의 재정립이라는 중요 측면을 밝힘.
- 19세기에 광범위한 진실로서 인구 이동이 증가된 시대임을 밝힘.
- 기술 변화, 산업화 및 제국주의가 인간 이동의 새로운 자극 및 능력을 만들어냄.
- 1815-1914년간 82백만명이 장거리 이주함
- human mobility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함: 이민, 식민지화, 유배(추방) 및 재정착
- o 19세기에 인적 이동의 범위, 규모 및 속도는 특히 20세기 세계대전직전의 20-30년간에 걸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됨.

- ① 기술의 진보, 특히 철도가 인적 이동을 크게 진전시킴.
 - ② 경제적 기회(예: 바쿠의 석유산업, 극동의 광산)은 주변 국가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함.
 - ③ 정복 그 자체.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제국은 일부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에 대해서는 강제함.
- o 러시아의 동쪽 및 남쪽으로의 팽창은 다양한 사람들이 재정착, 이주 및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자극 및 강제력을 제공하였으며, 아시아대륙의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새로운 문화접촉을 야기함.
 - 저자는 그중에서도 몇 가지 사례에 주목하여 설명함.
 - ① 인구이동 증가의 핵심요소의 하나로서 철도 건설
 - ② 인구이동의 다양한 형태로서 이슬람 성지 참배, 농민 재정착. 인종청소 및 노동자 이주
 - ③ 결론으로 이러한 인구이동이 아시아에서 제국들이 수렴되고 엮어지는 것에 기여하였다고 봄.

2. Russian Asia and Asian Russia

- o 1815년이후 러시아의 모든 영토 확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함.
-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증가한 것은 1830년대부터이며, 이는 동 방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적 과제라는 의식의 증대와 유럽국가들의 중국 남쪽지방으 로부터 침투 현상이 결합된 것에 근거함.
- 니콜라스 알렉산드로비치 황제의 1890-91년에 10개월에 걸친 여행이 러시아의 사고에 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존재감이 증가하였음을 잘 보여줌.
- 20세기초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국가가 됨(1914년 22백만 제곱킬 로미터). 1897년 러시아 인구의 15%(약 19백만명)이 아시아에 거주함.
-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육지 영토는 21,000 킬로미터가 확장됨.
- o 러시아의 영토 확장 방법 및 유형
- ① 제국에 직접 통합시킴: 투르크스탄 및 극동 지역
 - ② 보호령화: 부카라 등
 - ③ 영향권: 북부페르시아
 - ④ 조차지: 뤼순항
- o 러시아의 영토 확장의 동기: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함.
- 지정학 그 자체는 매개 변수이며, 경제적 이해관계도 의심할 바없이 포함됨. 국가적 과 제라는 의식의 증대로 주요 역할을 함.
- '제국의 위신'이라는 발상도 드러남. 주변지역의 안보상 도전을 실존적인 것으로 간주함.

- o 러시아 영토 확장과 인구 증가를 엮는 중요 현상으로 철도망이 출현함
- 러시아 철로의 급격한 증가: 1860년 1,626km → 1913년 70,156km
- : 코카커스 지방, 중앙아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으로 건설
- 철로 건설의 목적
- ② 제국의 2개 절반 부분(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국적 러시아 공간으로 만 듦
- ③ 러시아 각지역의 산업 발전을 증대함
- ④ 멀리 떨어진 아시아땅의 농헙 식민지화를 촉진함
- → 그 결과 러시아 인구 이동성이 근본적으로 증가함.

3. 인구 이동: 몇가지 변수들

- o 19세기 대규모 인구 이동의 원천들(sources)은?
- ① 정복 자체와 관련됨.
 - : 식민지군대에 의한 이동 수단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남음. 정복자 제국주의자. 정복을 위한 군사 작전과 강화(pacification)은 대규모 군대 이동을 초래함.
- ② 군사 이동과 관련, 난민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모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이동함.
- ③ 전시 파괴와 소개, 징발이 복합된 현상으로 탈출(exodus) 현상이 발발함.
 - : 페르시아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탈출한 경우, 러시아가 무역 자유 부여, 토지 획득, 세금 면제 등을 보장하면서 이주민들을 적극 모집함.
- ④ 러시아는 청에 적대적인 부족이 있는 새로운 국경지역에 인구 이주로 이득음 봄.
 - : 정복된 영토의 거주민들에게 재정착할 기회가 부여되고, 미래 새로운 정치적 동맹을 선택하게 함(코카커스와 투르크스탄의 경우 등)
- o 형벌지로서 시베리아에의 강제 이주는 강제적임.
 - 1593년부터 시베리아를 유배지로 활용하여, 1800년이후 그 이동 숫자가 크게 증가함. 1801-1914년 기간에 걸쳐 약 100만명 정도가 시베리아에 유배된 것으로 추정됨.
- 유배(exiles)는 러시아적 아시아의 핵심 산업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요 요소가 됨. 금 광개발 등. 9천명의 죄수와 4,500명의 유배자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건설하는 노동력이 됨.
- o 그 외 노동력 제공의 요소로 자연재해(홍수와 가뭄)에 의해, 그리고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에 따라 한국인들이 이주함(극동지역 한국인이주자 숫자: 1869년 3천명 → 1917년 8만명)
- 바쿠에서 석유산업의 부흥: 북페르시아로부터 상당수 노동자가 이주함.
- → 러시아의 아시아이웃으로부터 이주민은 각지역의 노동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해짐.
- o 상업과 무역도 대규모 인적 이동을 유발함.

- 러시아가 중국과 국경 조역 체결하여 중국의 몽골 지역을 지나는 무역 개시
- o 종교적 신념도 인구 이동을 증대 시킴
- 러시아내 이슬람교도의 메카 성지 순례 허용 및 지원: 전지구적 제국주의가 엘리트의 경험에서 가난한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는 계기 마련함. 새로운 교통수단이 여행 속도를 증가시키고 접근성을 높임.
- o 유럽적 러시아에서 농민 및 주민들의 이주 현상이 확대됨
- 1917년까지 30년간 우랄산맥을 넘어 5백만명의 농민이 이주함.
- 러시아에서 시베리아까지 이주민의 증가
- 극동지역(서부 시베리아와 북부초원지대)에 정착한 러시아 농민 숫자의 급증 : 1860년 7만명 → 1917년 875,000명. 1908-17년간 30만명 이주.
- o 러시아 국경을 넘어 식민지 개발이 진행된 대표적 지역: 하얼빈과 북부 이란

4. Embracing Mobility

- o 이러한 인구이동의 대부분은 자발적임: 국가와 관리에 의해 장려되거나 지시받지 않음.
 - 19세기말 짜르정부의 정치가들은 인구이동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 적극 검토함.
 - : 국경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정주하며 각 지역의 생산력을 촉발하기 위해 장려해야 한다고 봄. 1861년 농노제의 폐지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근본적 전제가 됨.
- o 성지순례에 대해서도 짜르 정부는 처음에는 표피적은 것으로 생각하여 승인하기를 주저하였으나, 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위 강화와 상업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함: 중국 선양내 영사관 설치, 이슬람교도를 영사로 임명, 불교도의 성지 순례도 지원
- o 1880년대 이전에는 농민 이주에 대해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장려 정책 실시함
 - → 이후 30년간 러시아 정부의 태도가 변화된 데에는 다음 요인들이 작용함.
 - ① 유럽적 러시아 지역내 인구 증가와 기근의 증가 : 1870년대 농업 공항의 장기화와 1890-91년 광범위한 기근이 발생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도 재이주가 유럽지방의 인구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됨.
 - ② 지정학적 고려: 열강간 경쟁에서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아시아내 러시아의 위상 확장을 추구함. 시베리아 분리주의에 대해 시베리아를 유럽적 러시아에 좀더 결속시키기로 결정하고, 식민지 개발이 그 방법이 됨.
 - ③ 경제적 고려: 비테 재무상은 농민 재이주가 나라의 경제 잠재력을 촉발시키는 중요 측면으로 파악함.
- o 시베리아의 식민지 개발화의 진전
 - 철도 건설이 러시아적 아시아 지역의 서반부에 대규모 농민 개발의 길을 마련함.

- 1904-106년 이주 자유법안이 통과됨.
- 이주 노동력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태도는 복합적이며 상반되기도 함.
- : 이주인내 인종적 균형을 고려하여, 값싼 황색인 노동자(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기업들의 의존도가 커지는 것에 불만을 가졌으나,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

5. 인구이동의 부정적 효과들

- o 러시아정부가 인적 이동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게 되었으나, 인적 이동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부정적 효과도 초래함.
- ① 이주한 러시아 농민의 문명화될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짐: 러시아 인종이 아시아의 주된 식민지 개발인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낌.
 - ② 언어적으로도 슬라브어 사용하는 이주민 지원 필요성 느낌: 현실은 이주한 아시아내 러시아계 농민들이 문화적으로 무능력하며, 사회적, 국가적, 종교적 갈등 문제를 야기시킴
 - ③ 식민지개발은 토착인들에게 쫒겨나거나 분열을 초래함 : 시베리아의 인구 구성을 러 시아인의 지배로 바꾸겠다는 정책으로 유목 사회가 유지되기 힘들게 됨
 - : 1916년 키르키즈와 중앙아시아에서 대규모 봉기는 당시 러시아의 전시 동원 징집과 이주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서, 그 대상이 러시아 정부에서 러시아인 정착자들로 바뀜.
 - : 공식적 반식민지 내전으로 3,500명의 식민지 개발자와 9천명 이주자의 집터가 파괴 됨

□ 결론

- o 19세기에 러시아의 아시아에서 2번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함.
- ① 1830년대부터 동방으로 진출할 목적하에 1850-60년대에 이르러 러시아가 이주 정책을 활성화하고 극동 및 중앙아시아까지 영토가 확장됨
 - ② 1880년대말 농민 이동에 대한 신정책 실시로 시베리아, 스텝지방, 극동지역까지 확장되고 이주민의 정착을 적극 추진함
- 1914년까지 동북아시아의 인구 구성이 변환되어서, 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 포함)들이 남부 코카커스, 중앙아시아 및 스텝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지배적 인구가 됨.
- o 19세기에 러시아가 오토만제국, 페르시아 및 중국 등 아시아의 중요 이웃국가들과 함께 근본적 변화를 겪으면서, 인적 이동이 이러한 수렴 현상에 중요한 요소임인 것으로 밝혀 집.

<u>Chapter7: "Faith in Empire: Ottoman Religion and Imperial</u> Governance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Jack Fairey

-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제국은 특정 종교를 보호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그 존재 이유를 주장하고 이를 핵심적 활동으로 간주하였음. 오토만 제국의 통치 명분은, 수니파 이슬람의 영역 (Dar al-Islam)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있었음. 하지만 19세기 들어 종교는 점차 국가의 세속적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시녀로 전락하였고, 그 정책의 목표는 국가이성, 인종, 경제, 신민(subjects)의 복지 등으로 이동함.
- 이 장에서는 19세기 오토만 제국의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19세기에 어떤 종교상의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아닌 '종교에 대한 제국의 관행과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다음 3가지 레벨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1) 국가 이데올로기라는 내부(internal)의 레벨, (2) 개인 및 종교 공동체의 관리라는 국내적(domestic) 레벨, (3) 국가 간의 관계라는 국제적 (international) 레벨.

1. Ottoman Religion and Imperial Governance, ca. 1800

- 오토만의 언어에는 영어의 'religion'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음. 서양의 '종교'는 개인의 신 앙적 신념을 가리키는 반면, 오토만의 '종교'는 신앙 공동체를 전제하는 것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수반하기 때문임.
- din은 흔히 religion으로 번역되나, 이 말은 동시에 사법적 판결(judgment)' 혹은 '의무 (obligation)'라는 뜻을 내포하였음. 즉, 오토만인들에게 종교란 비단 신앙과 종교적 의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 받들어야 하는 지도자, 지불해야 하는 세금, 지켜야 하는 관습,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문자 언어를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며, 그들의 정치적 삶과 사회적 정체성의 기반이었음.
- 오토만 제국은 '신자들(cemaat)', '민족(millet)', 또는 '집단(taife)'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앙 공동체로 분할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것은 '이슬람 민족'(millet-i Islam) 이었음. 하지만 비무슬림도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발칸 등지에서는 대다수를 점하고 있었음.
- 오토만 제국은 비무슬림 종교 공동체를 그 영역 외에 존재하는 것으로 치부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의 자치를 허용함. 제국에 대한 충성, 특별세(jizya), 그리고 열등한 사회적·법적 지위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비무슬림은 내부의 문제 대부분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음. 이러한 자치는 특정한 종교적 또는 신학적 원리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제국의 통치상의 필요에서 나타난 것이었으므로, 비무슬림 종교 공동체는 그 구성과 내부 조직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었음.

2.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tate

- 기존에는 오토만제국을 본질적으로 신정국가, 또는 '이슬람 전사 국가(ghazi state)'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종교를 그 행정적, 정치적 목표에 종속시킨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오토만 제국은 종교 공동체의 수장들에게 특권과 제국 내에서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그 협력을 얻음. 예를 들면,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기독교 millet의 경우, 그 주교(bishop)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독립적인 법정을 허용하고, 세금을 분배할 권한과 지방행정 위원회에서 의 지위를 인정해주었음. 그 대가로 주교는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반역행위를 진압하거나 이를 보고해야 했음. 이처럼 millet 시스템은 오토만 제국

- 을 자율적인 행정단위로 분할함과 동시에, 그것을 국가에 통합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
- 19세기 말까지 오토만 제국은 대체로 신민의 종교적 의례나 원칙(dogma)에 대해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함. 그에 반해 질서의 교란 행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기존에 확립된 위계(hierarchy)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직접 개입하는 일도 꺼리지 않았음.

3. "Defensive Modernization," Reforms, and the Threat of the West

- 오토만 제국의 장기 19세기는 나폴레옹이 5만명의 대군을 이끌고 알렉산드리아를 침공한 1798년 7월 1일에 시작됨. 당시 벌어진 피라미드 전투에서, 프랑스 군대는 단지 29명의 전사자를 낸 반면, 오토만의 맘루크 기병은 2,000명이 사망함. 오토만은 1801년 프랑스군대를 이집트에서 축출했지만, 이는 유럽의 강력한 동맹국, 영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얻은 성과였음.
 - 1739년 벨그라드(Belgrade) 조약 이후 한 세기 동안 오토만은 유럽 제국과 단독으로 맞붙은 전쟁에서 모두 패배함. 오직 강력한 유럽 국가와 동맹을 맺었을 때만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군사적 실패는 제국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킴.
- 이집트 총독 무하마드 알리 파샤(Muhammad Ali Pasha)는 1805년 이후 프랑스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인지하고, 그 방법과 인적 자원을 수용하면서 경제·군대·관료제 개혁을 단행함. 1811년과 28년 사이 이집트 군대는 그 종주국인 오토만이 해내지 못했던 아랍과 그리스 반란을 진압하고, 1831-32년과 1839년에는 오토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 그 사이 오토만 제국은 세르비아부터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지방 군벌, 종족 집단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내홍을 겪음.
 - 1820-30년대의 위기는, 오토만 제국의 엘리트들이 그 해체를 막으려는 절박한 노력으로 서 반세기에 걸친 정치사회적 개혁 실험을 단행하는 계기가 됨. 그 대부분은 여전히 옛 제국 통치의 방법이 맞다는 믿음은 버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전통은 이제 타락하거나 단절되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피상적 모방이 아닌, 보다 본질적인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

4. The Impact of the Tanzimat on State Ideology

- 1939년 11월 3일 술탄 압둘메시드(Abdulmecid)가 포고한 칙령은 Tanzimat 개혁의 이정 표가 됨. 이 개혁은 이슬람과 왕조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전통적 수사를 활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무슬림에게도 종교적 차별을 철폐하고 가부장적(paternally) 방식으로 호소하는 모순된 성격을 띠었음. 1839년 칙령은 술탄의 권력을 제한하는 한편, 어떤 지역 (region, sect)에 속하든지 간에 모든 신민에게 동일한 특권이 부여될 것임을 선언함. 이는 1876년 오토만 제국 헌법 제8조의 "제국의 모든 신민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구별없이 오토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는 명문을 통해 재확인됨.
- 종교적 차별의 철폐와 함께 오토만 엘리트들은 프랑스어 civilisation의 차용어로서 medeniyet라는 새로운 말을 개발함.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질서, 도덕성, 세련됨, 겨제발전, 그리고 물질적 안락을 뜻했으며, 이제 모든 개인들은 스스로 medeniyet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 그리고 국가는 이를 신민에게 각인시키고 그 목적을 위해 종교를 활용할 의무를 갖는다고 선전되었음.
- 오토만 국가는 모든 신민이 보편적인 'Ottomanness'의 감정을 갖게 하도록 노력했지만, 이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음. 우선 'Ottoman'은 오직 왕조와 엘리트들을 가리키는 말이

었으며, 평민을 'Ottoman'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적 감각에 위배되었음. 다른 논리적 대안은 'Turks'였지만, 이 또한 '무슬림'으로부터 '목축인(Pastoralist)'에 이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여 적절치 않았으며, 무엇보다 religion(din)을 언급하지 않고 nation(millet)을 말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오토만인들에겐 넌센스였음. 정부는 새롭고, 종교적으로 중립적 어휘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이와 더불어 종교적 차별 철폐의 칙령과 실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불평등 간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이 시도 또한 대부분의 이슬람인들이 종교적 평등을 인정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함. 예컨대 비무슬림에게 부과된 jizye는 1855년에 철폐되었지만, 이는 이후에도 이름만 바꿔 존속하다가 1907년에 이르러서야 폐지됨.
- 또한 오토만 제국은 19세기 민족 건설(nation-building)의 2가지 주요한 수단, 즉 국민교육과 군대복무를 간과하였음. 오토만 제국은 다양한 다양한 하위 그룹이 독자적인 학교·병원·고아원 및 기타 사회적 기관들을 유지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군대 또한 1909년 비무슬림의 정규군 징집을 명문화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군대는 대부분 무슬림으로 충원됨.

5. Narrowing of the Religious Sphere

- 오토만 제국의 지방 행정상의 특징은, 중개인(intermediary)의 중대한 권한과 역할에 있었음. 18세기의 경우 전체 조세 수입의 2/3가 중개인의 손에서 중앙정부로 넘어오지 않았음. 1820년대부터 오토만 제국은 신민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중개인에게 위임한 광범위한 통치 사무를 접수하려고 시도함.
- 종교적 개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음.
- 첫째, ulema의 사회경제적 특권을 철회하고, 이를 술탄의 하인, 즉 제국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외교관 집단에게 재분배함.
- 둘째, 국가가 신성한 자선행위(evkaf)의 주체가 되어 조세의 징수 및 재분배의 역할을 담당함. 그 결과, 기존의 조직들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고, evkaf에 의존하면서 생활하던 학자, 이맘(imam), 교사, 관료들의 국가 의존성이 커짐.
- 셋째, 다양한 형태의 종교법원들의 세속법정(nizamiye)으로의 통합. 세속법정에서는 종교 와 무관하게 모든 오토만 신민에게 단일한 법전을 적용함. 기존의 종교법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기능은 가족법, 개인의 지위, 종교적 의식 같은 것으로 국한됨.
- 넷째, 근대적 학교의 창설. 오토만 국가는 전통적 오토만 교육과 근대 서구식 교육을 융합한 엘리트 양성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야심찬 시도는 18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오토만 제국대학을 창설하려고 한 것이었음. 이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하는 근대 교육 시스템 수립을 시도함.

6. Soft Power and the Domestication of Religious Authorities

- 19세기 유럽열강은 해외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선교단체와 보호령 제도를 활용하였는데, 오토만의 경우 정치적 구조 자체가 이러한 경쟁을 조장함. 즉, millet와의 동맹은 현지인들의 네트워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바, 이에 따라 모든 유럽 열강은 오토만 제국 내 종교적 공동체와 각각 특수한 관계를 주장하기 시작함.
- 유럽 열강은 전면 전쟁 없이 오토만 심장부를 분할하거나 식민지화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

- 의 암묵적인 신사협정에 도달하였으며, 점차 영토보다는 영향력-soft power-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펼침.
- 비록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비정치적 동기에 의해 움직였지만, 오토만 제국, 그리고 유럽 외교단은 그 활동이 궁극적으로 특수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간주함. 뿐만 아니라 오토만 정부는 선교사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산 하는 한편, 오토만 내 기독교인들에게 불만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조장한다고 인식하였으므 로, 그 신민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공공교육, 고아원 설립, 공공의료, 종교 출판물의 검 열과 같은 활동을 강화함. 19세기 학교의 개설의 주요한 목표는, 서양 선교사들의 '프로파갠 더'의 영향을 차단하는 데 있었음.

<u>Chapter8: "Maritime Goes Global: The British Maritime Empire in Asia"</u>

Donna Brunero

- 19세기 아시아로 확대되는 영국제국의 무역 네트워크와 해상권을 조명
- 해양제국의 구성 요소를 살피고, 해상의 시각에서 그것의 영향을 살핌
- 19세기 아시아 내 영국의 주요 식민지 항구는 인도의 체나이, 봄베이, 캘커타, 코롬보, 싱가 포르, 홍콩 등이 존재하였고 이들 항구들에서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자유무역 시장이 개방 및 활성화 됨. 무엇보다 아시아의 식민지 항구들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달리 아시아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 오히려 홍콩이 서양식 문화를 수입한 것이 예외적
- 영국제국기에는 과거 해적의 출몰이나 폭동으로 불안정했던 항로가 영국 왕실해군의 관리/ 보호를 통해 많이 안정화됨.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등과의 충돌도 있었지만 상당한 권력을 행사.
- 아시아의 무역은 복합구조로 운영됨. 영국의 무역관, 아시아의 상인, 그리고 현지의 노동력 이 영국의 아시아 무역 네트워크 및 허브들을 운영

❖ 19세기 이전 아시아의 해양제국

- 명나라시대 바다는 조공과 교역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스스로를 해양제국으로 간주하지 않음.
- Melaka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항구도시국가들이 15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항구도시에 국한되고 어떠한 trading community가 해상을 지배하진 않음.
- 해양을 관리하고 지배한다는 개념은 서구적인 발상이었음 → 시작점이 포르투갈과 오토만제 국.
-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넘어 인도로 항로를 개척하고 포르투갈에 이어 네덜란드도 17세기 싱가포르 마카오에서 리스본을 오가며 포르투갈의 해상권을 빼앗음
- 네덜란드의 해양제국은 기존의 포르투갈과 달리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킨 자유해에 기반한 제국이었음 (그로티우스 Mare Liberum)

❖ 아시아의 해양제국으로 영국

- 영국은 상대적인 후발주자였지만 무역을 통해 제국이 된 국가임.
- 따라서 영국은 "해상의 자유"가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특히 동인도회사와 같은 무역 community가 설립되고, 해외 은행이 생기고, 자국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해군이 항로를 안정화시키고 관리
- 싱가포르와 인도 켈커터와 같은 주요 항구 허브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관리가 이루어짐, 19세기 등장한 증기선은 무역의 효율성 향상에만 기여
- ▶ 영국의 해양제국의 가장 큰 기여는 무역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체계화시킨 점
- 초기에는 그저 무역을 위해 관계를 맺었고 현지의 통치세력을 존중. 하지만 현지인들과 자국의 회사들, 타 유럽국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그들과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점차 영토의 지배권을 두고 정당화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식민지배로 변화
- 해양제국은 과거 내륙의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장
- 무엇보다 해양제국은 과거 내륙의 제국과는 달리 폭력/전쟁으로 만들어진 제국이 아니었음 으로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갖고 있지 않음. (Armitage: "British empire of the seas was both historically novel and comparatively benign; it could therefore escape the compulsions that destroyed all previous land-based, and hence obviously military, empire.")

❖ 기타

- 이하 내용은 아시아의 대형항구도시들이 등장하고, 일반인들의 아시아 방문도 가능해질만큼 안정화 되었다, 해외자본과 투자가 생김 //

Chapter9: "Empire in the Long Run: Asia in the Nineteenth Century"

Odd Arne Westad

- ㅇ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제국이 근대 아시아를 만드는데 크게 작용
- 유럽은 17세기 초 이래 제국은 대안적 국가 형성과 경쟁
- 아프리카는 유럽적인 제국적 통제가 대륙 대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 ㅇ아시아 제국이 16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유럽 제국과 상호 작용한 점이 주된 이유
- 인도에서 영국은 무굴 제국의 계승
- 청제국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다른 제국과 투쟁, 상호작용, 때로는 수혜
- 일본은 유럽제국으로부터 학습
- 아시아에서 제국은 수입품도 아니고 유럽제국 형태가 아시아제국을 대체하지도 않았다는 점
- 혼성적 관행이 제국이 아시아의 정부 형태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을 보장
- ㅇ근대적 재구성의 과정에서 '긴 19세기 기간'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
- o근대적 재구성 과정에서 19세기의 형상이 오늘에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영토적 요소의 힘
- 제국적 영토성의 형상이 잘 지탱되고 있는 점

-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아시아의 가장 큰 국가
-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가졌던 형태 유지
- 베트남은 불란서와 구엔 왕조가 함께 만들었던 대로 유지
- o 19세기 중요성과 관련하여 유럽중심적 이미지에 대한 반론
- 유럽 중심적 사회과학자들이 우월적 유럽이 장기적 요인이라고 주장
- 척도로서의 유럽은 '긴 19세기 예외적 현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 19세기의 긴 기간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 세력 사이의 일정한 상호 작용이 정치경제적 전환에서 발생한 많은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음.
- 청제국은 19세기 아편전쟁 기간 영국과 유럽 세력의 도전과 내부 반란을 극복하여 보다 강력한 제국적 국가로 부상
- 청제국은 19세기에 생존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유럽적인 제국통제 유형에 적응
- 유교적 종주권 대신 보다 직접적인 통제로 전환 시도
- o 19세기 비즈니스 경쟁, 통합과 시장 확대가 초기 아시아 자본주의 형성을 추동
- 아시아 교환 모델 내에서 유럽 스타일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19세기 아시아에서의 제국이 자본주의적 전환을 어떻게 촉진했는지도 중요한 요소
- ㅇ아시아에서 19세기 제국적 지배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전환이 가장 두드러진 점
- 일본이 대표적 사례: 상대적 고립과 내적 통합에서 다른 아시아 제국이 되려는 시도
- 일본의 정치적 동기와 유럽적 통제와 확대 방법의 결합
- 청과 달리 처음부터 제도를 건축하여 스타일상 유럽적
- 대륙으로부터의 고립, 역내 주민과의 타협을 어렵게 되어 부담으로 작용
-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제국은 종식되었는가: 예를 들어 중국에서의 민족국가가 되려는 제국 의 담론이 티벳, 위구르, 다른 소수민족에게는 가식으로 비쳐지는 점
- 긴 19세기의 제국이 오늘날 우리에게 긴장을 불어넣는 대표적 사례가 한국: 일본의 식민지 배와 20세기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제국의 출현의 결과로서의 분단
- ㅇ오늘날의 다면적 민족 갈등이 제국적 지배가 우리에게 남긴 패턴에서 어떻게 증폭되고 있는 지 이해할 필요
- 아시아에서 제국의 힘과 장수하고 있는 점, 19세기 제국이 재구성되는 역사를 파악하는 것 이 오늘날 아시아에서 주된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